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16. 3. 2(수)	홍보담당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행사진행: 총무과	문의	총무과(02-880-5093)

제 목: 서울대학교 2016학년도 입학식 개최

- 서울대학교는 2016학년도 입학식을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부 3,353명이며, 대학원 3,539명으로 총 6,892명이다.

 - 성낙인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사사로운 이익 추구와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우리 모두의 가치를 드높여 줄 줄 아는 인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 곧 선한인재가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성총장은 “큰 뜻을 품어 보고, 응혼한 기상을 가슴에 담고 세상과 마주할 것이며, 깊은 내면의 성숙을 위해 기꺼이 고독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것” 을 당부했다.

 - 자연과학대학 김빛내리 교수가 입학식 축사 연사로 나서 신입생 후배들에게 상상력을 키우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 주요 식순
 -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 입학식사(성낙인 총장), 축사(자연대 김빛내리 교수), 축가
- ※ 붙임: 입학식사(총장), 축사(김빛내리 교수)

「2016학년도 입학식」 식사

2016. 3. 2.(월) 11:00

서울대학교 체육관

서울대학교의 새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들은 새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제분들을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대학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성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작고 편협한 지난날의 나를 버리고 정신적·사회적으로 독립된 주체, 즉 완전한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와 국가를 키우고 책임지게 될 인재들입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대학 생활은 위대한 내일을 준비하는 의미심장한 시기이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한 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서울대학교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의 지대한 노력으로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이자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분이 국가와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은 서울대학교를 더욱 빛나게 하는 디딤돌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큰 배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공부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공부입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문제, 주어진 과제를 푸는 일에 몰두해 왔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작고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 고민하는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또 창의적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좁은 지식에 만족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대한 식견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을 읽어내는 혜안(慧眼)이 있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이익 추구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우리 모두의 가치를 드높여 줄 줄 아는 인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 곧 '선(善)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큰 뜻을 품어 보십시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전쟁 참화에서 벗어난 가난하고 험벗은 최빈국에서 출발하여 지구촌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빛나는 역사였습니다. 그 어려운 도정의 선두에는 늘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서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책무가 될 것입니다.

웅혼한 기상을 가슴에 담고 세상과 마주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활동할 무대는 세계 전체가 될 것입니다. 지난 날 세계가 우리를 도왔지만 이제 우리가 세계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때입니다. 1955년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받았던 혜택을 이제 지구촌 가족을 위해 되돌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일조하고, 개발도상국을 돕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도전과 희생의 길로 기꺼이 발을 내딛기 바랍니다.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3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 공헌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웅대한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가슴 벅찬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매우 기쁘고 소중한 일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좌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차분히 우리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상반된 자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을 흔히 고독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 일컫습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고독을 맞보아야 합니다. 깊은 내면의 성숙을 위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찌면 자신과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큰 그릇으로 자라난 인물은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과 공감(共感)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나 홀로 이기적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찾아가 위로하고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실로 탁월한 능력입니다. 이제 나와 내 가족 위주의 안온한 세계에 머물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2016학년도 신입생들의 약동하는 젊음, 폭발하는 에너지를 감지하면서 크나큰 희열에 휩싸입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의 미래고, 우리 사회의 기둥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느낀 이 희망찬 출발을 언제나 가슴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세대로서 총장인 저와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믿고 응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작은 씨앗이 어느 새 자라 제법 큰 나무로 자리 잡듯 자제분들이 이렇게 멋진 청년, 숙녀로 성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신입생이지만 조만간 세계적인 학자, 우리 사회를 이끌 리더, 세계에 공헌할 창의적 인재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 인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장면이 실로 기쁘고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자제분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빛나는 눈빛에서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만끽하십시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2016년 3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2016 서울대학교 입학식 축사

총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학부모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16학번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입학식 축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지난 몇 주간은 계속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28년 전에 있었던 제 입학식을 생각하고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느 분께서 축사를 해 주셨을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 마디도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께서 축사를 하셨는지조차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부담을 떨치고 이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끔 백일몽을 꾸니다. 여러 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시간대로 옮겨 가면 어떨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인생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상상은 스무살 대학신입생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신입생이 되면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용기내서 해 보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무 살의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오늘 여러분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상상력과 잠재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하며 현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무살의 저는 상상력도 빈곤했고 저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저는 60년대말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관심을 받지 못한 넷째 딸이고, 몸이 약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에 결석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저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저보다 잘나 보였고, 미국이나 유럽의 과학자들은 저와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겪어 본 세상의 범위는 너무나 좁았고, 그만큼 제 꿈의 크기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시절을, 학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을 적당히 따라가며 다른 전공을 넓게 배워보지도 못하고 봉사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어정쩡하게 보내고 말았습

니다.

제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스무살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넌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해 주고 싶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용기를 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미래에 대해 그리고 사회에 대해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하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분위기는 여러분 세대가 꿈을 가지기 어려운 세대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회를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항상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기회를 알아 볼 수 있는 능력과 상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마이크로RNA 연구를 시작했을 때 마이크로RNA는 일반적으로는 생소한 주제였고 리스크가 커 보였을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인터뷰에서, 하버드를 그만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했을 당시 리스크가 크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회를 제대로 알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새로운 시도가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 무인자동차, 우주여행, 유전자편집,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상상했고, 이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질문하고,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의 크기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십년쯤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서는데 팔다리에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나서는,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 간에 남은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암은 완치됐지만, 그때부터 저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관련된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 대부분은 조만간 좌절감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보다 재능이 뛰어나거나 배경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술하게 만나게 될 거고, 자신의 결함과 단점이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결함이나 부족함이 때로는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는 위대한 웅변가였지만, 원래는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말을 더듬는 결함 때문에 오히려 웅변의 내용과 기술을 가다듬기 위해 더욱 노력했던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해외 학회에 초청받아서 강연을 할 때 많이 걱정하고 긴장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못하는데다 목소리도 작고 보시다시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에 반응이 좋았고, 계속 다른 학회에 초청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떤 분께서 제 발표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해 주시더군요.

“You make me feel intelligent.”

처음엔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부가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쉽게 천천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라도 강연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강연을 듣는 자신이 매우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로서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쉬운 영어로 천천히 말할 수 밖에 없었던 거였죠. 제가 제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보려고 내용을 참신하게 알차게 담으려고 노력했고,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하려고 꼼꼼히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부족함이 강점이 되었던 겁니다.

옛말에 심성 구지(心誠求之), 수 부중 불 원의(雖不中 不遠矣)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사서 가운데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저는 이 심성 구지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구하라. 그러면 비록 딱 가운데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 정하고 실패없이 완벽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조금 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못 찾아 좀 헤매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노력하다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좌절과 실패에 부딪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를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간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스스로도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가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배우고 깨닫는 것이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좋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만, 경력을 쌓아가면서 연구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도, 언제부터인가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스는,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망에 충실하고 외적 성공을 추구하는 본성 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질을 구현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내적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외적 성취를 우선시해서 두 본성간의 균형을 잃고 내면이 파편화한다고 합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의 계획을 쓰면서, 매일 한 가지씩은 내면을 키우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라도 청소해 주시는 분들께 인사할 때 눈을 마주친다든가, 생각나는 친구에게 바로 안부전화를 한다든가, 작지만 기부금 보낼만한 곳을 찾아본다든가, 휴학 중인 지도학생에게 연락을 해 본다든가... 작은 일이라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는 저로서는 아주 늦게 시작한 숙제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서울대에서의 학창시절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일원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2.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김빛내리